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3. 20.(금) 13:00
(지면) 2026. 3. 21.(토) 조간

우리 지역 공유재산 잘 쓰고, 동네는 함께 가꿔요

- 김민재 차관 강원 강릉시·양양군 방문, '2026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' 참석
- 봄철 산불 대응태세 점검, 강릉 경포해변서 지역민과 「우리동네 새단장」 활동도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 김민재 차관은 3월 19일(목)부터 이틀간 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양양군을 방문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, 지역 주민들과 함께 '우리동네 새단장' 캠페인을 펼쳤다.

<공유재산 1,103조 원 시대, 숨은 재산 찾고 관리는 꼼꼼하게>

□ 19일 강릉에서 열린 「2026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」*에 참석한 김 차관은 전국 250여 명의 공유재산 담당자들을 격려하고, 2026년 공유재산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.

* 3.19.(목)~20.(금),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/ 지방정부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50여명 참석

○ 김 차관은 공유재산이 지역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 발전의 기반임을 강조하며, 지방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.

○ 현재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말 기준 1,103조 원이며, 행정안전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 발굴과 관리 분석, 진단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.

□ 워크숍에 이어 강릉시 포남동에 소재한 강원도청 관사*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, 공유재산인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당부하고, 주거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.

* 강원도청 글로벌본부(제2청사) 관사, 총 152실

<산불 아픔 딛고 ‘우리 동네 새단장’, 공동체 가치 회복>

□ 둘째 날인 20일 오전, 김 차관은 2023년 대형 산불*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 경포 해변을 찾았다.

* '23.4.11.(화) 발생 / 산림120ha, 인명피해사망1·부상1명, 이재민551명, 재산273억 등 피해 발생

○ 이곳에서 주민자치회, 자원봉사자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「우리동네 새단장」* 활동을 펼쳤다.

*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가꾸는 작은 실천이 곧 주권 행사의 소중한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‘국민주권’을 일상의 삶터에서 실천하는 자발적 캠페인 - 환경정비를 꾸준히 실천하는 단체 등을 ‘꽃손’으로 지정해 가방, 청소용품 등 지원 예정

○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,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. 또한, 지역사회 참여·연대를 상징하는 주민자치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.

<산불 대응 태세 점검 및 현장 목소리 경청>

□ 김 차관은 새단장 활동에 앞서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‘봄철 산불 조심기간(1.20.~5.15.)’과 ‘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(3.14.~4.19.)’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□ 김민재 차관은 “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”며,

○ “주민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우리 동네를 가꾸고 보살피는 ‘우리 동네 새단장’ 활동이 지역사회 성장과 대한민국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식 (044-205-3104)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광섭 (044-205-3681)
		담당자	사무관	정솔희 (044-205-3682)